

TV 보면서 생각 키우기

- 정연실 교사 / 2003. 6. 10 -

여러분은 '시어머니'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선생님! 시어머니는 모두 나빠요. 맨날 며느리를 구박하기만 해요."

"결혼도 반대해요."

"심술궂어요."

지난 미디어 수업시간에 아이들에게 '시어머니'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물어보았더니 이렇게들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의 대부분이 이미지로 대변되는 요즘 아이들에게 시어머니의 이미지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실제 자신의 할머니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냐고 물었더니, 대부분 자상하고 좋다는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할머니가 어머니의 시어머니가 되는데도 말이죠.

'반장은 똑똑하지만 잘난 척하고,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부잣집 딸들은 버릇이 없고 잘난 척하고 사치가 심해요'

'똥똥한 사람은 먹는 것만 밝히고요, 바보 같아요'

마치 어떤 규칙이라도 있듯이 대상에 대해 비슷한 이미지로 기억하고 대답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구나 생각했습니다. 스테레오타입 즉 고정관념이란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틀에 박힌 생각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공주라고 하면 '착하고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왕자라고 하면 백마 탄 용감한 모습을 떠올리는 것 등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스테레오타입은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어릴 때부터 접했던 동화책, 애니메이션, 텔레비전 드라마나 광고, 영화 등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의 영향력들 중에서 스테레오타입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여러 매체들 중 특히, 텔레비전은 현실 사회와 텔레비전이 보여주는 사회를 동일시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의 영향력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나왔으며, TV 시청 교육은 미디어교육 중에서도 가장 활성화된 분야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진 스테레오타입의 대부분은 TV 드라마나 시트콤, 광고 속에서 그려지는 인물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현실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미 가진 고정관념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외모나 직업, 작은 특징들을 통해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은 스타에 대한 지나친 동경, 선정성, 폭력성 등과 같은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TV를 끄지 못하는 것은 텔레비전이 주는 여러 가지 유익한 점 때문입니다.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접근 금지'라는 팻말을 붙이는 것은 매체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해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만날 수 있는 것도 미디어를 통해서이고, 세상의 여러 정보와 오락거리들, 나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생각을 접

하는 것도 미디어를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은 세상을 보는 창과 같습니다. 이 창의 유리를 바르게 끼우고 잘 닦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부터 텔레비전 시청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텔레비전을 누구와 함께 보십니까? 혼자 시청하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시청하십시오. 그리고 되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TV시청 중에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시끄럽다고 조용히 시킵니다. 그러나 이젠 함께 수다를 떨면서 텔레비전을 보십시오. 마치 모니터를 하듯이 폭력적인 대사, 욕설, 선정적 장면을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드라마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인물의 성격이 어떠한지, 오늘 출연자의 의상이 어떠했는지 등과 같은 아주 작은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스테레오타입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도 좋고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다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정리됨을 느낄 것입니다.

이야깃거리들을 기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가정의 TV시청일지가 있다면 하루에 한 프로그램 정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텔레비전을 시청하다 보면 생각을 하는 능력이 길러질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골라보는 프로그램도 생기게 될 것이고, 시청 시간도 조절하게 될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조금씩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텔레비전 속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읽는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이 주는 가치관이 우리가 가진 가치관, 세계관과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텔레비전은 생각을 키우는 수단이 되며, 가족간 커뮤니케이션의 좋은 통로가 될 것입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